

전대원

서울 [의과대학 의학과 내과학교실](#) 교수이자 대한간학회 신임 연구기획이사이다.

□

목차

- [1 경력](#)
- [2 교내동정](#)
- [3 연구](#)
 - [3.1 요근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 발견\(이달의연구자 2019.10^{\[1\]}\)](#)
- [4 주석](#)

경력

- 2019, 대한간학회 연구기획이사

교내동정

- 2019.10 [이달의연구자](#) 선정

연구

요근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 발견([이달의연구자 2019.10^{\[1\]}](#))

- 논문명 : Psoas muscle fluorine-18-labelled fluoro-2-deoxy-d-glucose uptake associated with the incidence of existing and incipient metabolic derangement
- 전대원 교수는 ‘요근(허리 근육)의 글루코스(흔히 포도당으로 부르는 대표적인 단당류) 섭취와 대사증후군 발생과 연관성’ 연구를 통해 근육량과 기능 상태가 대사질환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.
- 연구는 [구리병원의 핵의학 김지형](#)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진행하였다.
- 연구과정 :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검사한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. 500명을 추적 관찰하고, 500명의 검진 결과를 분석했다. 전대원 교수팀은 요근과 대사 관련 수치들을 비교했다.
- 연구 결과 요근이 적다면 대사증후군이 동반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. 추적 관찰에 의하면 근육량이 적거나 질이 나쁜 사람들 혹은 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향후 대사질환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.^[2]

주석

1. [↑](#) <뉴스H>전대원 교수, 요근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 찾아내
2. [↑](#) 출처:[사랑한대매거진251-이달의연구자](#)